



[낙농경영] 美, 생산비 상승으로 원유생산량 감소 추세

- 생산비 부담 가중으로 생산량 감소 및 사육 규모 줄어



미국에서 극심한 가뭄이 이어지며 사료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원유생산량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농무부(USDA)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 이상의 증가를 이어 오던 원유생산량이 지난 8월에는 전년대비 1.1% 증가하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위스콘신 대학의 낙농 경제학자는 최근 주사료인 옥수수과 대두 가격이 전년동기대비 크게 상승함에 따라 낙농가들의 생산비 부담이 가중되며 생산량이 감소하고 사육 규모도 줄어들고 있다고 분석했다.

원유생산량은 줄어든 반면 치즈, 버터 등 유제품 수요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전면등교가 시작되며 우유 소비량이 늘어나는 가운데 수출 수요 또한 강세를 이어가고 있어 유제품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출처 : farmprogress.com, 10월 7일자 >

[IDF 동향] IDF, 멕시코 정회원 가입 승인

- 멕시코 가입으로 회원국 원유생산량 세계 총 생산량의 75% 이상 차지

지난 10월 12일 개최된 제110차 총회에서 멕시코가 IDF 정회원국으로 가입함에 따라 회원국이 39개국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IDF 회장 Piercristiano Brazzale는 “멕시코가 IDF 회원국이 되었음을 환영하며, 앞으로 함께 현재 세계낙농 업계가 직면하고 있는 주요 이슈에 대해 함께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한, “멕시코는 다른 회원국들과 함께 IDF가 세계낙농산업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전문지식을 전파하는데 있어 더 힘을 보태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세계낙농업계에서 IDF의 능력과 영향력은 더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멕시코의 가입으로 IDF 회원국 원유생산량이 세계 총 생산량의 75% 이상을 차지하게 되었으며, 앞으로 세계 낙농업계가 직면하고 있는 중요한 이슈와 기회에 대해 협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이번 총회에서는 임기만료로 공석이 된 이사 2명과 과학사업조정위원회(SPCC) 위원 6명을 선출했고, 2022년 사업예산(안)도 의결했다. 2025년 IDF 연차총회 개최국은 칠레로 결정된 가운데, 2023년 개최국인 중국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개최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 출처 : IDF 본부, 10월 12일자 >

위 내용은 세계낙농동향을 전파하기 위해 해외 낙농사이트에서 뉴스를 발췌해 번역한 것으로 낙농진흥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위 내용을 기사 작성시 활용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